

『일의 미래: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컨퍼런스 ('26.07.09.)

AI와 기본사회, 그리고 노동의 미래

NRC 이사장 이 한 주

차 례

- 01 **시가 바꾸는 세상** - 경이와 두려움 사이 / 2
- 02 **노동시장의 충격** - 대체의 신호 / 6
- 03 **더 깊은 질문** - 왜 기본사회인가 / 11
- 04 **해법** - 진짜성장과 기본사회 / 17

『일의 미래: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컨퍼런스

01

AI가 바꾸는 세상 < 경이와 두려움 사이 >

01 시가 바꾸는 세상

같은 기술, 정반대의 미래



경이로운 풍요



E. Musk

AI·로봇스가 '경이로운 풍요'를 안기고, 인간을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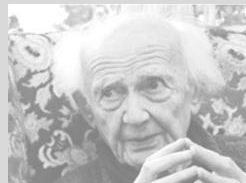
생산성 혁명

결핍의 종식

노동 해방



레트로토피아



Z. Bauman

불안한 현재를 피해 과거로 도피하는 '레트로토피아'

대체 · 양극화

부족주의

감시·조작

“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도록 ‘설계’ 하느냐 다. ”

01 AI가 바꾸는 세상 - 분기점

AI 생산성 혁명과 노동시장 충격이 동시에



사람의 역량 향상

- ✓ 생산성 ↑, 임금 ↑, 새 직무 창출
- ✓ AI 사용자 중 금융업 79%, 제조업 80%가 AI가 자신의 업무성과 개선(OECD, 2023)
- ✓ 한국 근로자 중 전체 근로자의 24%가 AI로 인해 생산성 혜택 [한국은행, 2025]



사람을 대체

- ✓ 임금 ↓, 고용 ↓, 노동소득분배율 ↓
- ✓ 한국 근로자 중 27%는 대체 또는 소득 감소 가능 [한국은행, 2025]
- ✓ 현 직무구조가 유지될 경우 기존 직업 유형의 약 90%에서 자동화 대상 (KDI, 2023)

AI 생산성 혁명

- ✓ 10년 후 글로벌 GDP 최대 4% 증가 전망 (IMF, 2025)
- ✓ 한국 총요소생산성 1.1~3.2% 증가, GDP 4.2~12.6% 증가 [한국은행, 2025]

“ AI 생산성의 이익은 자동으로 분배되지 않는다 ”



“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AI는 전반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
”

-K. Georgieva(2024) -



“
밀려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
준비하고 대비해
놓아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2026. 1. 29.) -



{ ‘무엇을 만드느냐’ 만큼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 가 결정적 }

『일의 미래: 시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컨퍼런스

02

노동시장의 충격

< 대체의 신호 >

02 AI의 사회적 위험

고용구조 전환 가속화

- ✓ AI 전환 속도가 신규 직무 창출 압도 → 구조적 실업
- ✓ 단순 반복 노동을 넘어 숙련 전문 노동 대체

다중 격차 확대

- ✓ 청년·여성·플랫폼 노동자: 자동화 압력에 가장 노출
한국은행(2025): '22~'25년 15~29세 일자리 21.1만 개 감소
- ✓ 자산형성 기회, 사회안전망 접근성 격차로 확대

부의 불평등, 노동의 양극화

- ✓ AI 자본 초과이윤 집중,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 ✓ '대체 불가능 계층' vs. '쓸모없는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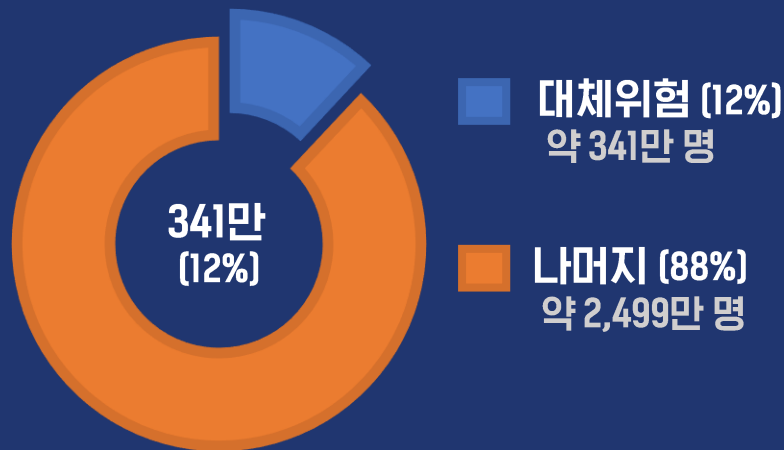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성 약화

- ✓ 초연결 시대의 사회적 고립 증대
- ✓ AI 의존성 심화: 비판 사고 약화, 인지 능력 격차

AI는 기술·산업 영역을 넘어,
경제·사회 구조 및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대한 힘

02 이번 충격은 과거와 다르다

한국 · AI 대체 가능 일자리 (한국은행, 2023)



글로벌 AI 노출 비교 (한국은행, 2023)



구분	과거 자동화	현 AI 충격
대체 대상	단순반복·육체노동 손과 발이 하는 일	인지·판단·전문직 머리가 하는 일까지
노출계층	저학력·저소득 아래에서 위로	고학력·고소득까지 위에서 아래로 확장
속도	수십년 사회 적응시간 확보	수 년 AI가 AI를 만드는 사이클
젠더효과	남성 제조업 중심 블루칼라 중심	남성 ↑ · 여성 확대 화이트 칼라 직격
분배효과	중산층 형성에 기여 노동소득분배율 ↑	자산 양극화 노동소득분배율 ↓

02 '대체'는 이미 기업전략이 되었다

Amazon

60만 명

2033년까지 채용 회피(2027년 16만).

인건비 126억\$ 절감·로봇 100만 대+

“AI 대신 ‘cobot’이라 하라”

The New York Times[2025]



IBM

30%

비고객 대면 직무 약 26,000명 중
30%가 5년 내 AI·자동화로 대체 가능

Bloomberg·WaPo[2023]



Salesforce

9,000→5,000명

AI 에이전트로 고객지원
인력 감축, 대화 절반 AI 처리

TechRadar[2025]



미, 2026년 테크 업계 157,147명 실직, 하루 평균 674명 꼴(Trueup. 2026. 6.25.)

‘대체’는 먼 미래의 가설이 아니라 구체적 숫자다.

02 고용 없는 성장의 신호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감소 전환**, 특히 **청년 고용의 위축**

총 취업자수



* 2026년 5월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명 감소

* 출처 : 국가데이터처



17개월 만 첫 감소

청년 취업자수



* 2026년 5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42.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5만명 감소

*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1. 1. 이후 최대

산업별 취업자증감내역

구 분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제조업	-14.0만 명 [23개월 연속 감소, 7년 3개월만 최대]
농림어업	-12.1만 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9만 명 [고속권·지식서비스업에서도 감소]
건설업	-4.3만
도매 및 소매업	-3.6만

『일의 미래: 시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컨퍼런스

03

더 깊은 질문

< 왜 기본사회인가? >

03 AI 시대를 가르는 3개의 질문



.. 『인간의 존엄·분배·공존에 관한 근본적 고민 필요』 ..



삶의 의미와 존엄

- ▶ 노동이 줄면 인간은 어디에서 삶의 의미와 존엄을 찾는가?



부와 권력의 귀속

- ▶ 모두의 데이터로 학습한 AI의 막대한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공존의 새 원칙

- ▶ 일자리를 전제한 사회계약을 대체할 새 기본권의 범위는?

03 기술은 빠르게, 사회는 천천히

AI 혁신 가속화, 사회 전환의 지체

✓ AI 전환 — 기하급수적

초지능·에이전트·AX 가속, 'AI가 AI를 만드는' 슈퍼사이클

✓ 사회 및 제도 전환 — 점진적

법·제도·재교육·합의는 느리게 — 내재화에 시간이 걸린다

AI 전환 과제는 사회 전환 관점 필요

✓ 기술 혁신은 제도·문화·시민역량을 통한 내재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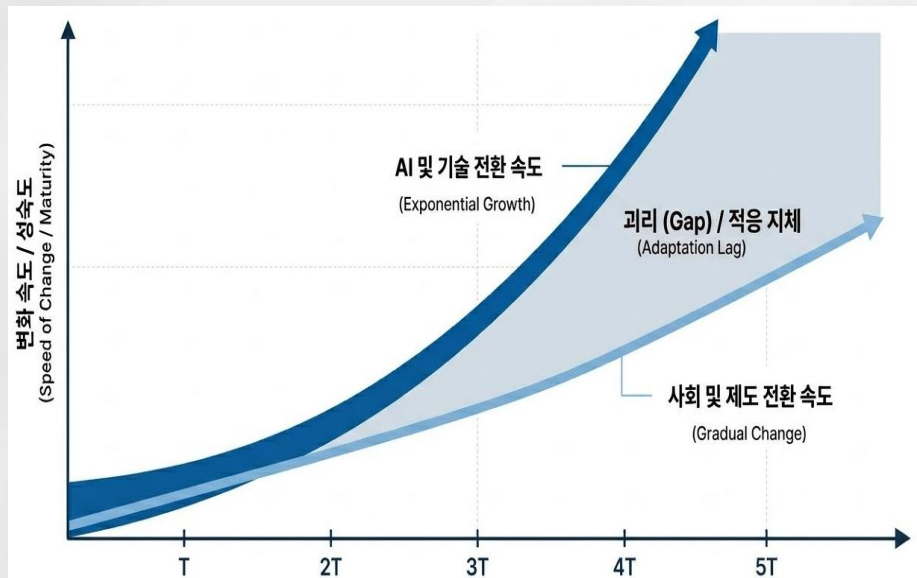
'기술=성장 엔진, 제도=브레이크'라는 낡은 이분법 탈피

✓ 기술 혁신이 사회 역량으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불균형과 취약성 증폭

✓ 사회 전환이 함께 가지 않으면 AI 전환도 불가능

< 마르텍의 법칙(Martec's Law) 기반: AI 전환 속도와 사회 전환 속도의 괴리 >



격차가 벌어질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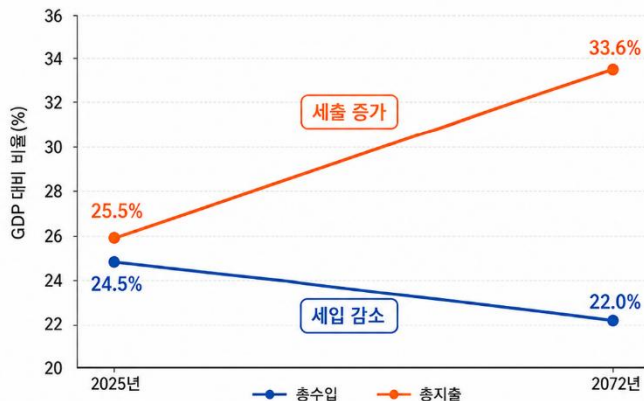
노동 충격 · 불평등 · 윤리 공백이 함께 커진다.

03 노동 충격은 곧 “재정 충격”이다.

AI 전환의 비용은 노동시장을 거쳐 재정으로 돌아온다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난다

NABO 장기재정전망 (GDP 대비 비율, %)



⚠️
국가채무 급증
재정위험 증폭

국가채무(GDP 대비)
47.8%
↓
173.0%



세입 감소



세출 증가



국가채무 확대



재정위험 증폭

자료: 국회예산정책처(NABO),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 세입 잠식

- 고용 둔화 →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기반 약화
- 소득 감소 → 소비세 기반 약화

➔ 세출 압력

- 고용충격 대응 지출 증가
- 초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돌봄 등 의무지출 확대

➔ 재정위험 증폭

-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면서 재정수지 악화 국가채무 확대

03 AI 시대, 왜 기본사회인가

01 '노동 없는 사회' 대규모 실업의 구조적 위험, 노동을 전제로 한 복지 모델의 한계

AI가 대체하는 직무 영역이 확대될수록 선별 기준 모호, 복지 자원 기반 붕괴

→ '노동 → 소득' 연결이 아닌 **새로운 생존·권리의 근거**를 정립

02 AI는 데이터·언어·지식 등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자산 위에서 작동

→ 데이터·알고리즘·지식재산(IP)·인프라 등 **공유자산 이익의 사회적 환류** 및 재분배 필요

AI 시대는 노동 - 소득 - 복지의 연결고리를 재설계하는 새로운 사회계약 요구

노동 소멸이라는 위협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삶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필요



03 AI 시대 기본사회, 새로운 사회계약의 설계

구분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	기본사회 모델
핵심 전제	노동 중심	보편적 권리 중심
정책 목표	최소한의 생존 보장, 빈곤 구제 소득 재분배	기본적 삶의 보장 개인·사회 역량 극대화
분배의 기준	노동시장 참여 여부 완전고용 전제 복지 모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보편적 기본권
복지의 성격	사후적 대응, 선별적 복지 단편적 소득 보장	사전적 예방 보편적 사회 안전망(소득+서비스)
인간에 대한 관점	노동하는 시민 생산적 기여, 일할 권리의 주체	보편적 권리 및 자아실현과 참여의 주체

노동 소멸의 위험 앞에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
이를 토대로 **의미창출·관계·자기실현**이라는 인간의 존재 가치 추구

『일의 미래: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컨퍼런스

04

해 법 < 기본사회와 진짜성장 >

04 기본사회, 헌법 정신에서 출발

헌법이 약속한 ‘행복추구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적 구현**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정신과 기본사회

- ▶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해 기회를 균등히 하고, 각자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케 한다

기본사회의 지향

- ▶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갖던 사회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각자의 창의와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

04 시대적 변화에 맞는 기본권의 재해석

기본권 보장은 '적극적 자유'의 실현

→ 인간 존엄과 행복한 삶에 필요한 기본적 자유가 광범위하고 평등하게 보장되는 '적극적 상태'를 의미

AI 시대는 대체가 어려운 인간 고유의 역량이 더 중요

→ 기본적 삶이 갖춰져야, 개인 역량 발현 및 각자의 가능성 확대도 가능
생계 보장·소득 지원을 넘어 돌봄·주거·교육·금융 등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 → 역량 강화의 기회 제공

'기본'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확장

→ 정보접근권·데이터기본권·기후기본권 등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포함 가능
노동 대체의 압박에서 벗어나 인간 역량의 극대화 방향으로 기술 및 사회구조를 바꿔 나가야

04 기본권 보장의 원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999)

- ✓ 헌법적 가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최초 법적 제도화
- ✓ 빈곤을 개인 책임 아닌 국가 책임으로 규정
- ✓ 복지를 시혜에서 법적 권리로 전환



이제, **기본권 보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보여줘야 할 때

04 기본권의 확장: 금융기본권

‘국민기초금융보장제도’: 금융을 도로·전기와 같은 필수 공공 인프라로

- 시혜에서 권리로, 패러다임의 전환

1

접근권

금융에 진입할 권리

계좌개설권(비차별)

2

생존권

과잉이자로부터 보호

과잉이자 제한·
기초보험

3

자립권

기초자금을 이용할 권리

기초대출

4

재기권

실패로부터 다시
시작할 권리

채무자보호법·
새도약기금

5

자산형성권

자산형성의 출발선 보장

기본자본·
베이비본드·
매칭저축
[청년미래적금]



금융기본권: 보호를 넘어 ‘기회의 구조’로 재설계

04 기본권의 확장: 학습기본권 1

교육

공급자 중심
학교·대학의 틀



학습·배움

자기주도
생애·경력 설계

자기주도적 삶·경력 설계 역량의 권리 보장

- ☑ 개인이 생애에 걸쳐 주도하는 학습(learning)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
- ☑ 학교·대학 교육의 틀을 넘어, 개인이 인생과 경력을 스스로 설계하도록 뒷받침하는 권리로 보장

04 기본권의 확장: 학습기본권 2



왜 지금 중요한가: AI 전환으로 '청년 경력사다리' 붕괴 위험 직면

초급직무의 자동화 + 기업 훈련체제의 해체

→ 무너진 기업 내부노동시장 기능을 사회적 인프라로 재구축 필요

'기업이 길러 기업이 쓰던 시스템'에서 '**사회가 길러 기업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청년 경력패스 (Career PASS)'

청년의 일·학습 경험을 하나의 계정에 축적하고,
이를 검증된 경력자본으로 전환해 고용으로 잇는 생애 경력 인프라 구축



경력패스

일·학습 활동의
통합 기록·자격

개인학습계좌

학습을 뒷받침하는
재정 지원

경력포인트

일경험의 인정과
고용으로의 전환

04 기본사회와 혁신성장의 선순환

기본사회 → AI 혁신 생태계 촉진

1

다양한 소득 기반 확보

참여소득·사회배당·직무
전환소득·농촌기본소득 등

2

수요·소비 기반 유지

대량실업의 소비 위축 방지 →
AI 경제의 선순환

3

사회갈등 완화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 →
공정한 전환

4

혁신 수용성 제고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뢰 →
도전·창업·재교육·
사회적 가치 활동 촉진

5

혁신 인재 생태계

학력·자격 중심 → 역량 중심
평생학습·AI 리더러시로
창의적 인재 풀 지속 공급

6

기술 방향 전환

무인자동화 AI →
'AI-인간 협업'으로 재설계

{ 기본사회는 AI 전환을 위한 **최적화된 사회 전환 전략** }

04 주요 해외 정책 사례

‘평생 학습’

국가가 보장하는 재교육

-  [싱가포르] **S\$4,000** SkillsFuture: 40세+ 크레딧·월 S\$3,000 훈련수당, AI 인력 3배(NAIS 2.0)
-  [일본] **¥1조 (5년)** 기시다 리스킬링 투자(2022): 직무형고용·노동이동·재교육 3축
-  [독일] **훈련비 최대 100%** 자격기회법(2019): 구조변화 대응 훈련비·임금 보조 + 국가숙련전략
-  [EU] **1,000만+ 명** Pact for Skills(2020~) 재교육 인원(2025년 390만), Union of Skills
-  [영국] **£39,160** 평생학습계좌(LLE, 2027~): 4년치 모듈형 학습 + AI Action Plan(50개 권고)

소득보장과 ‘유연안정성’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2017 - 18, 실업자 2,000명에 월 **€560** 무조건 지급
-  [덴마크] **유연안정성(Flexicurity)** 유연한 해고 + 관대한 실업급여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의 3박자

노동 보호 규율과 세제

-  [EU] **AI Act** (2024) 세계 첫 ‘위험기반’ AI 규제 (2024.8 발효) - 투명성·책임성·고위험 시스템 의무
-  [스페인] **Rider Law** (2021) 플랫폼 노동자 ‘고용 추정’ +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화(결정 알고리즘 공개)
-  [OpenAI] **로봇세·AI배당** ‘New Deal’(2026.4.): 과세기반 임금 → 자본 이전, 전 국민 AI 배당 펀드, 주4일제

CONCLUSION

기본사회, AI 시대 진짜성장의 조건

- 01 AI는 생산성 혁명이자 노동시장의 구조적 충격 → 사회전환 설계가 관건
- 02 노동 중심 사회계약의 한계 → 보편적 기본권 중심 기본사회로의 전환 필요
- 03 금융기본권·학습기본권으로 기본권 모델을 확장·구체화
- 04 기본사회는 AI 혁신 생태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기본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혁신성장을 함께 지키는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



감사합니다

